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액 4076만원

■ 통계청,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발표

“전세 거래량 증가세...전세자금대출 비중 대부분일 것”

대출잔액 규모는 40대>30대>50대>60대>20대 순

‘아파트’ 거주자 잔액 커...연체율은 ‘오피스텔’이 더높아

가계대출 잔액이 날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대출 잔액과 연체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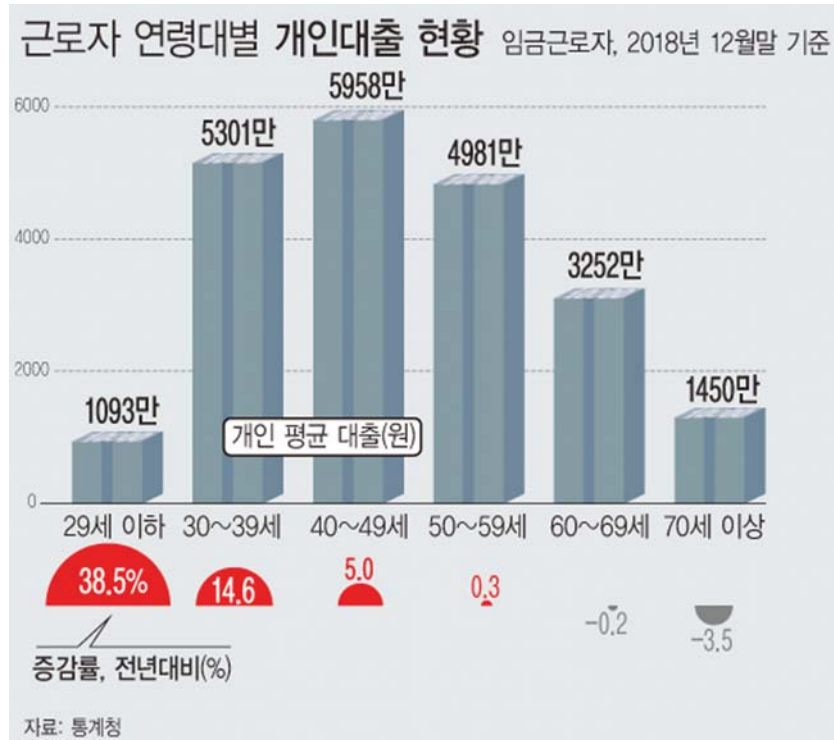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잔액은 4000만원을 초과 웃돌았다. 2017년 6월 3591만원 수준이던 대출 잔액은 같은 해 12월 3795만원, 지난해 6월 3923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20대 청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대출 규모 자체는 비교적 작지만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에 비해 전세 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임금근로자가 은행 또는 비(非)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잔액(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평균값(대출잔액의 합/전체 임금근로자 수)은 4076만원이었다. 1년 전(3795만원)보다 281만원(7.4%) 증가했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액이 2592만원, 비은행으로부터의 대출액이 1485만원이었다.

임금근로자를 개인 대출 잔액의 기준으로 볼 때 정중앙에 위치한 자의 대출 잔액을 의미하는 중위대출은 3660만원으로 평균값보다 낮았다. 대출 잔액이 평균값보다 낮은 저(低)소득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3%(342만원)로 평균값보다 높았다. 은행 대출이 4320만원, 비은행 대출이 1633만원이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



로 1년 전(0.51%)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3개월 이상 연체 금액을 전체 개인 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은행 연체율은 0.22%에 불과했지만 비은행 연체율은 1.1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평균 대출액이 59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0대(5301만원), 50대(4981만원), 60대(3252만원), 70세 이상(1450만원), 29세 이하(1093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잔액이 가장 작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38.5%로 가장 높았다. 은행 대출 증가율은 56.3%에 달했다. 이밖에 30대(14.6%)와 40대(5.0%), 50대(0.3%)도

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불어났다. 70세 이상(-3.5%), 50대(-0.2%)는 줄어 들었다.

29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0~29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6세 이상일 개연성이 크다. 우영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은 “30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령대 특성상 주택 소유 비율이 높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이 그다음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며 “대출 규모 자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증가폭도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거래량이 1년 전 대비 지난해 상당히 늘어난 점을 비춰 볼 때 주택

외담보대출 중에서도 전세 자금 대출의 비중이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29세 이하에 한정 짓지 않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대출 증가율을 목적별로 보면 주택외담보대출이 가장 높았고, 학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60대에서 1.00%로 가장 높았다. 50대(0.68%), 60세 이상(0.55%), 29세 이하(0.53%), 40대(0.53%), 30대(0.3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역시 60대(0.10%p)에서 가장 높았고, 50대(0.08%p), 40대(0.04%p)에서 두드러졌다.

대출 잔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교적 주택 가액이나 담보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4997만원이었다. 중위대출 잔액이 5000만원으로 더 높았다. 소득이 비교적 높아 대출 규모가 큰 임금근로자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연립·다세대 거주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3247만원이었고 중위값은 2985만원이었다. 오피스텔 및 기타의 경우 각각 3022만원, 2500만원이었다. 단독주택은 2642만원, 2106만원으로 대출 잔액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평균 대출 잔액 기준 오피스텔 및 기타가 13.2%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13.0%), 연립·다세대(12.0%)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증가율은 5.3%에 그쳤다.

연체율은 오피스텔 및 기타(1.16%)에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1.12%), 연립·다세대(0.71%), 아파트(0.37%) 순이었다. 연립·다세대(0.06%p), 아파트(0.05%p)에선 올랐지만, 오피스텔 및 기타(-0.16%p), 단독주택(0.01%p)에선 내렸다.

이번 통계는 일자리와 가계 부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작성·공표됐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 2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2017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상 임금근로 일자리를 점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올해 추석 상여금 평균 65만원

올해 추석에 기업 2곳 중 1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직원 1인당 상여금은 평균 64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907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직원 1인당 상여금은 평균 64만 7000원으로 지난해(62만원) 보다는 소폭 늘었다. 2017년(66만원), 2016년(71만원) 조사보다는 여전히 적었다.

‘정기 상여금,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3.3%) 순이었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418개사)은 그 이유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4.7%, 복수응답),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2.1%),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6.6%), ‘불경기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17.2%), ‘상반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7.2%) 등을 들었다.

이번 추석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9.8%였다.

기업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

대기업 120만원 vs 중소기업 58만원

기업 형태별 상여금 지급액은 대기업이 평균 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견기업(102만원), 중소기업(58만4000원)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인 55.6%(복수응답)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17.4%), ‘불가항상에 따른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6.7%) 등의 순이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별도 상여금 지급’(51.7%)이 가장 많았고,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45%),

자세히 살펴보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67.9%가 선물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는 72%가 선물을 준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 기업의 12.9%(117개사)는 추석 상여금과 선물이 모두 없거나 다소 쓸쓸한 추석 이 될 전망이다.

직원 1인당 선물의 평균 예산은 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품목으로는 햄, 참치 등 가공식품(51.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19%), ‘배, 사과 등 과일류’(18.2%), ‘한우 갈비 등 육류’(9.5%),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7.1%) 등이 있었다.

## 화장품, 불매 퍼진다...’DHC 추방’ 분위기 확산

화장품 기업들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극단적인 언행으로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한국콜마 운동한 회장의 유튜브 영상 논란에 이어, 일본 화장품 기업 DHC가 혐한 파문을 일으키며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DHC는 자회사의 유튜브 콘텐츠

‘DHC테레비’에서 막말·혐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국내 불매운동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 10일 DHC테레비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고 발언했고, 또 다른 출연자는 “일본이 한글을 통째로 지금의 한글이 탄생했다”는 막

말을 쏟아냈다. 혐한·막말 발언에 SNS와 온라인을 타고 DHC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뒤에선 혐오하는 이중성”, “올리브영도 DHC 불건을 빼라”, “DHC 화장품 무조건 거르자”, “뒤통수 맞았다”, “팔마에 집중하던 불매 의지, DHC에 쏟아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자신



의 페이스북에 “#잘가요DHC” 해시태그 캠페인을 SNS에 펼치자. 불매운동으로 DHC를 자국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